

해남, 자원순환 선도·지속가능 미래 제시

자원순환복합센터 전남서 첫 건립…연간 2만여명 방문
민선 7기부터 역점사업 추진…탄소중립 체험·공유·교육

해남군자원순환복합센터가 한해 2만여명의 주민이 찾는 등 해남군 자원순환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개관한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자원순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과 체험, 나눔을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시설이다.

해남군이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スマ트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에서 처음으로 센터가 건립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원순환 사업에 1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2만여명의 군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며 명실상부 군민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해남 자원순환복합센터에 마련된 나눔선반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자유롭게 나누는 등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의 참여로 자원순환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있다.

볍게 체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오래 쓰고, 오래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프로그램을 확

대 운영할 계획이다.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기술 교육, 자연과 환경을 이해하는 환경 감수성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순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시작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원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해 보는 참여형 환경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대내외 저명한 환경 전문가를 초청해 매달 1회 환경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 첫 순서로 2월에는 남종영 작가를 초청해 고래를 비롯한 동물권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큰 관심을 받았던 환경기획전시는 올해 확대 운영되며, 방문객의 연령대와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견학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2025년 한해 동안 지속적인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완도해양치유센터 경유 상품 개발 시 추가 지원

완도군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

만8000원, 섬 지역은 2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만5000원, 섬 지역은 2만8000원이 지원된다. 1박 이상 체도권은 3만원, 섬 지역 3만3000원, 2박 이상 체도권은 3만5000원. 섬 지역은 3만8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1박 2일 이상)하는 '완도 치유관광' 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000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 음식점 영수증, 숙박 시설 이용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섬 방문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 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며 힐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며 "단체 관광객 유치로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목포시는 최근 조석춘 권한대행 주재로 제3회차 '섬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열고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 점검했다.

목포, 섬권역 정주여건·해양관광 활성화 총력

고하도·달리도·외달도·장좌도 등 '사람이 살고 머무는 섬' 육성

목포시가 고하도·달리도 등 관내 섬권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과 해양관광거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조석춘 목포시장은 최근 제3회차 '섬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열고,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종합 점검했다.

'목포 클그립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린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고하도·달리도·외달도·장좌도 등 섬권역에서 추진 중인 14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부시장을 비롯해 해당국장과 부서장이 참석해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을

신안, 1004번 친환경차로 바꾼다



신안군이 '친환경 1004번 버스 구입'을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모금에 들어갔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낙도 지역 등을 운행 중인 노후화된 1004번 버스를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1004번 버스 구입' 고향사랑 지정기부모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감안, 고성버스 운행이 어려운 낙도 등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9년부터 승합차를 활용한 '1004번'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운행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탑승객 안전 문제와 배출기스 증가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총족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승합)차량 도입을 결정했

다. 군은 해당 사업을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으로 기획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약 2년 동안 정식 모금을 진행한다.

이번 지정기부사업의 목표 모금액은 15억원이며, 모금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기부금은 전액 전기버스 25대 구입과 총전소 25개소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iRINGER

주신성테크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 42 (오선동)
본사 Tel. 062-954-0627 Fax. 062-954-0620
연구소 Tel. 062-972-0629 Fax. 062-972-0629